

CHOI WOOKKYUNG, UNFORGETTABLE ABSTRACT PAINTER

October, 2016 | SIN JEONGWON

page 1 of 8

PRIVILEGE_OCTOBER 2016 / EDITOR_SIN JEONGWON

PAINTER

CHOI WOOKKYUNG,
UNFORGETTABLE
ABSTRACT PAI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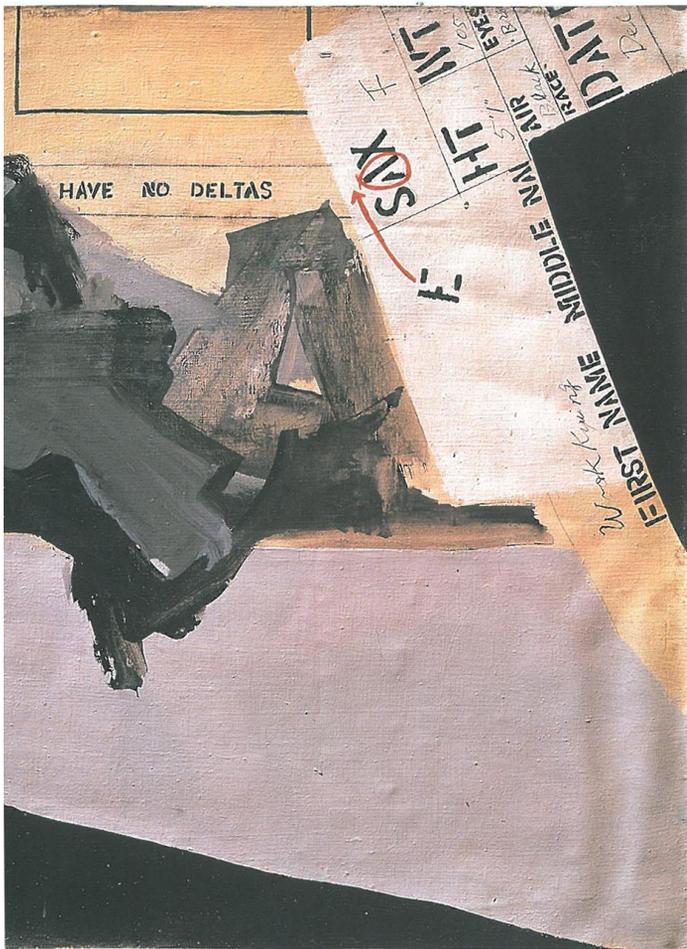
Kukje Gallery will present <Wook-Kyung Choi: American Years 1960s-1970s>, a solo exhibit for the late painter, through Oct. 30. It's an opportunity to revisit the great abstract artist who stood her ground amid monochrome painters.



LA FEMME FÂCHÉ, 137 x 174 cm, 1966, OIL COLOR ON CANVAS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PRIVILEGE _ OCTOBER 2016



HAVE NO DELTAS, 56 x 46 cm, 1968, OIL ON CANVAS



UNTITLED, 36 x 56 cm, C.1960S, COLLAGE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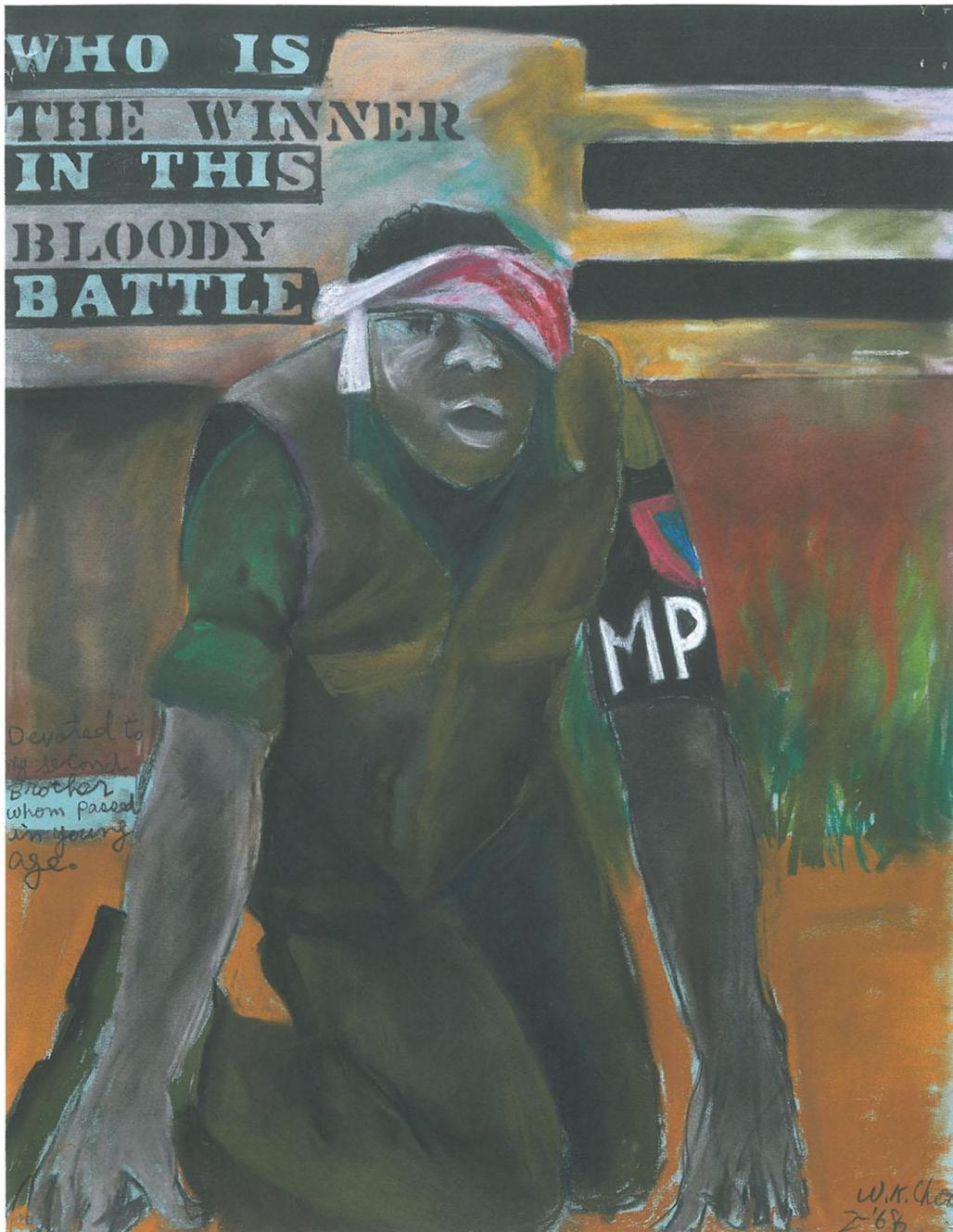
PRIVILEGE_OCTOBER 2016





UNTITLED, 41.5 x 59 cm, 1966, ACRYLIC ON CANVAS

PRIVILEGE_OCTOBER 2016



WHO IS THE WINNER IN THIS BLOODY BATTLE? 118 x 63 cm, 1968, PASTEL ON BLUE PAPER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의 추상화가

“지난 몇 년간 1960-1970년대의 한국 단색화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은 누구 일까를 고민했습니다. ‘단색화가 그 시대에 주를 이루었던 것은 분명한데, 또 다른 화풍이나 작가는 없는가? 미술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아직 그 조명을 받지 못한 작가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이번 최옥경 개인전이 시작됐어요.” 10월 30일까지 열리는 최옥경 개인전 〈Wook-Kyung Choi: American Years 1960s-1970s〉의 기획 배경에 대한 국제갤러리의 답변이었다. 1960-1970년대는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 정성화 등을 필두로 단색화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다. 미국의 현대미술보다 모노하, 앵포르멜, 아르테 포베라 같은 일본 혹은 유럽에서 건너온 미술 사조에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국전이라 불리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중심으로 한 보수적 경향이 주를 이뤘다. 유학 시절이 길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흐름에서 당시 최옥경과 그의 그림은 한국 현대미술의 주류에 편입되기 힘들었다. 모든 요소가 당시 ‘주류’라고 불리던 것과 반대 지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은 뉴욕에서 유행하던 추상표현주의를 닮아 표현과 색상이 대담하고 강렬했다. 게다가 서론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작고 까만 피부의 여성 작가를 당시 사회가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기를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뛰어난 심미안을 갖춘 이들은 최옥경을 놓치지 않았고, 덕분에 그녀는 1970-1980년대까지 크고 작은 국내의 전시를 열어왔다. 그러다 45세에 돌연 요절. 그렇게 최옥경은 잊히는 듯했다.

일찍이 꽃핀 재능

1940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최옥경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고, 열 살 무렵부터 윤보 김기창, 우향 박래현 화백에게 개인 지도를 받았다. 1959년 서울예고,

196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곧장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크랜브룩 아카데미에 입학할 당시 미국 화단은 1940-1950년대부터 이어진 추상표현주의를 기반으로 한 근대미술이 정립된 시대였다. 정돈된 형식과 계획으로 그림을 그리기보다 작가의 감정을 화폭에 옮기는 방식이다. 대표 화가로는 액션 페인팅의 대가로 꼽히는 잭슨 폴록, 대담한 드로잉을 선보인 빌렘 더쿠닝, 정적인 추상화의 절정을 보여준 색면 추상화가 마르크 로스코가 있다.

유학 초기 시절 최옥경 역시 이 작가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작품에 영향을 받아 이들의 스타일을 쫓거나 때론 변형하면서 자신만의 드로잉 언어를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예술을 향한 열정 하나로 고향을 떠나는 20대 후반 여성 작가의 감수성은 캔버스 위에 꽃망울이 터지듯 폭발했다. 영향은 받았으나 모방은 흔적조차 없었다. 정형화된 사물을 그리지 않고 자유분방한 붓놀림을 보이며 대담한 색채를 사용한다는 광범위한 기준으로 다른 추상표현주의 화가들과 그녀를 한데 묶어 언급할 수 있을 뿐, 상대적으로 발랄한 푸른색, 뜨거운 태양 아래 익은 듯한 오렌지색, 색이 바란 듯 농익은 레드 컬러는 최옥경만의 시그니처다. 이번 국제갤러리 전시의 대표 이미지인 ‘생난 여인[La Femme Fâché]’ 역시 이 시기에 그린 작품이다.

여전히 뜨겁고 빼어난

1971년 ‘잠시’ 귀국한 최옥경은 이후 3년간 한국에 머무르며 서예와 민화를 탐구했다. 작품을 통해 한국적 소재인 까치, 호랑이, 용 등을 다루고 창호지, 먹, 안료를 재료로 오방색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4년 미국으로 돌아갔다. 아마 1971년 전세계 화랑에서 개최한 귀국전이 단색화 중심이던 당시 화단에서 환영받지 못한 충격과 그로 인한 부적응이 큰 이유였으리라 짐작한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뿌리내린 채 여생을, 그러니까

그녀가 죽기 전 약 10년간을 보내지도 못했다. 최옥경의 삶은 단조로웠다고 전해진다. 작업에 몰두하던 한 달쯤 외부와 접촉을 끊는 일이 빈번했다. 그림, 학교, 아주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이 전부였다. 붓질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틈새는 줄담배와 캔 맥주, 수십 잔의 커피가 채웠다. 언뜻 이방인의 삶을 산 것 같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 중심을 두지 않았을 뿐 그녀는 자신의 세계와 작품 안에서 오롯이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20년간 최옥경이 남긴 페인팅, 드로잉, 콜라주 등 1000여 점의 작품이 이를 증명한다.

1978년 실종된 아버지를 찾으러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최옥경은 뉴욕시외 라스웰 미술관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10개월간 뉴욕 시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서부의 자연에 영감을 받은 그림을 그리고 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문학과 언어에도 관심이 깊었다. 영어로 시를 쓰고, 한국 미술사를 영문으로 번역한 커리에도 눈에 띈다. 이론과 실천에 모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작가였음이 틀림없다. 귀국 후에는 영남대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힘썼고, 고국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한껏 부드러워진 색채와 곡선이 드러나는 작품을 내놓았다. 다만 죽기 직전 1년간의 그림에서는 다소 충동적이고 불완전한 신과 색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미술 전문가들은 전한다. 그리고 1985년, 최옥경은 유서 한 장 없이 파음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살아 있다면 어떤 그림을 더 만날 수 있었을까?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녀의 재능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아쉬운 건 최옥경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일 것이다. ‘한국에 추상표현주의 형식을 도입한 화가’ 정도로 언급되기에 남은 그림들이 여전히 뜨겁고 빼어나다.